

『華陀玄門內照圖』의 藥物炮製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¹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² ·

(주)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⁴

심현아^{1, 2} · 황성연³ · 엄동명^{2, 4*}

A Study on *Huatuoxuanmenneizhaotu* in Processing of Medicinal

Sim, Hyun A^{1, 2} · Hwang, Seong Yeon³ · Eom, Dongmyung^{2, 4*}

¹ Prof.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 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 Korea Bio Medical Science Institute

⁴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 : *Huatuoxuanmenneizhaotu*(華陀玄門內照圖) is a Huatuo's book in two volumes, The second volume classifies poisonous and nonpoisonous medicines with explaining processing of medicinals. We, authors have concern on processing of medicinals in *Huatuoxuanmenneizhaotu*.

Methods : Through *Huatuoxuanmenneizhaotu* text translation, we will try to categorize four ways : classifying 1) poisonous and nonpoisonous medicines, 2) methods of making medicines, 3) processing of medicinals using water and fire and 4) methods of supplements in processing of medicinals.

Result : There are some miss-matching in poisonous and nonpoisonous medicines category in *Huatuoxuanmenneizhaotu* comparing with *Bencaogangmu*. There are several methods in making medicines, processing of medicinals and supplements in processing of medicinals.

Conclusion : These results explain that processing of medicinals in *Huatuoxuanmenneizhaotu* were really diverse and various.

Key Words : *Huatuoxuanmenneizhaotu*, processing of medicinals, *Bencaogangmu*, Huatuo

I. 序 論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Tel : 063-850-6941 Fax : 0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접수일(2012년 4월 26일), 수정일(1차 : 2012년 5월 9일,
2차 : 5월 12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華陀玄門內照圖』는 華陀가 약 5~6세기에 撰成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華陀가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華陀의 제자들과 傳인들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內照圖』라고 이름을 붙이고 후대로 내려오며 『華陀玄門內照圖』 또는 『玄門脈訣內照圖』, 『內照法』이라 하기도 한다¹⁾. 『華陀玄門內照圖』(이하 『內照圖』라 簡稱함)는 총 2권으로 卷上에서는 經脈과 臟腑圖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卷下에서는 脈象과 臟腑病症, 藥物, 死證 등에 대하여 각 分類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明代의 嘉靖間刊本과 抄本, 未詳年代刊本과 清代 嘉慶年의 抄本, 日本의 여러 권의 抄本 등及其他抄本 등이 있으며²⁾, 이 중 嘉靖刻本이 『道藏精華』³⁾에 수록되어 있다.

『內照圖』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간행시기와 저자, 『存眞圖』와의 관계, 본문편제, 臟腑理論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⁴⁾, 藥物의 炮製法에 대한 研究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內照圖』의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에 수록된 58종 無毒藥物과 「論藥性有毒炮製者」에 수록된 8종 有毒藥材를 대상으로 하여, 有毒無毒의 分類가 『本草綱目』과 일치하는지 여부, 炮製 이전에 약재를 손질하는 방법, 藥物에 대한 炮製法, 炮製에 사용된 補料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 本草學教材에 수록된 炮製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⁵⁾.

연구에 대한 底本으로는 『道藏精華』에 수록되어 있는 『華陀玄門內照圖』(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大韓, 自由出版社, 1995.)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原文 校勘은 『華陀先生內照圖淺解』(彭靜山 編, 華陀先生內照圖淺解,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5.)이하 『內照圖淺解』라 簡稱함)와 『華佗遺書』(高文鋒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에 수록된 『華佗先生玄門脈訣內照圖』를 참고하였다.

II. 本論

【原文】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

熟地黄(酒浸洗焙乾) 陳皮(去白晒乾) 蒼朮(切碎米泔浸一宿晒乾) 遠志(去心) 厚朴(去粗皮剉用生姜製焙乾) 乾姜(炮裂) 甘草(炙黃色或生用) 杜仲(去粗皮剉用生姜汁拌炒乾) 骨碎補(去毛剉用酒拌蒸一日晒乾) 天門冬(用湯微潤抽心晒乾) 麥門冬(同上) 狗脊(去毛剉酒浸一宿炒乾) 鼈甲(去裙醋醃慢火反覆炙黃色) 石決明(研細末) 訶黎勒⁶⁾(灰中煨去核酒浸蒸焙乾) 檳榔(平坐端正者勿令見火) 肉苳蔻(剉酒浸一宿焙乾) 大腹皮(用大豆汁與酒相和洗過剉焙) 枳殼(麩炒去穰) 皂角(去皮塗酥炙焦黃色) 杏仁(麩炒去皮尖) 葶藶(用紙上攤開微炒) 仙靈脾⁷⁾(用羊脂拌炒脂盡爲度) 石斛(去根剉酒浸一宿晒焙乾) 鹿茸(火焙去毛酒浸一宿用酥塗慢火炙黃) 陳麻黃(去根節) 茯苓(去皮) 大黃(去皮煨或生用) 括萎(去皮炒黃) 當歸(破血宜用頭取血止痛用尾) 黃連(去鬚剉用蜜拌慢火炒⁸⁾) 龍齒(研細水飛過晒乾) 龍骨(粘舌者佳用酒煮焙乾) 草龍膽(去蘆剉甘草水浸一宿晒乾) 茯神(去皮并中心所抱木) 荊三棱(火煨熟剉碎) 前胡 柴胡 秦艽 蘆朮 桔梗 紫苑(去土各令去蘆頭) 人參(不去蘆令人嘔吐) 犀角(鎊) 羚羊角(鎊) 黃耆(去黑心學開塗蜜炙微赤) 黃芩(去黑心) 牛膝(去蘆) 從蓉 兔絲子(各令酒浸二日切晒乾) 貝母(去心) 山茱萸 桑白皮 地膚子 石鹽 夜明砂(各令微炒) 禹餘糧 磁石⁹⁾(二味各用炭火燒通赤醋醃七遍各令研細水飛過用)¹⁰⁾

1) 馬繼興 著, 萬芳 編集, 馬繼興醫學文集, 中醫古籍出版, 北京, 2009, p.74.
2) 馬繼興 著, 萬芳 編集, 馬繼興醫學文集, 中醫古籍出版, 北京, 2009, pp.74-77.
3)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大韓, 自由出版社, 1995.
4) 한봉재 외 7인,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3(4), 2006.
한봉재,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주된 본초학교재로는 本草學(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서울, 영림사, 2005.)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本草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臨床本草學(辛民教 編著, 서울, 영림사, 2006.)과 비교할 것이다.

6) 訶子를 말함,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864.
7) 淫羊藿을 말함,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327.
8) 저본에는 黃連 去鬚, 剉, 用蜜로 되어 있어 의미가 통하지 않는데, 『華佗遺書』와 『內照圖淺解』에 근거하여 ‘黃連 去鬚 剉 用蜜拌 慢火炒’로 수정하였다.
9) 磁石을 말함,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53, 李文瑞, 李秋貴, 中藥別名辭典,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12.
10)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大韓, 自由出版社, 1995, pp.75-77.

【國譯】

藥性味가 無毒한 藥物의 炮炙製도를 논함

숙지황 (술에 담귀 씻고 불에 쪄서 말린다.) 진피 (하얀 껍질을 없애고, 벌에 말린다.) 창출 (잘라서 찜뜨물에 하룻밤 담근 후 벌에 말린다.) 원지 (心을 없앤다.) 후박 (粗皮는 없애고 쪄낸 다음 生姜製하여 불에 쪄서 말린다.) 건강 (구워서 쪄낸다.) 감초 (黃色이 나도록 굵거나 혹은 날것으로 쓴다.) 두충 (粗皮는 없애고 쪄개어 生姜汁에 섞어 볶아 말린다.) 골쇄보 (터럭은 없애고 쪄개어 쓴다. 술에 섞어 쪄 후에 하루 동안 벌에 말린다.) 천문동 (湯에 담가 약간 적서 心은 뺀고 벌에 말린다.) 맥문동 (위와 같다.) 구척 (터럭은 없애고 쪄개어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볶아 말린다.) 별갑 (네 귀퉁이의 연한 살을 제거하고 醃醃에 담근 후 慢火에 黃色이 나도록 반복하여 굵는다.) 석결명 (갈아 곱게 가루낸다.) 가려득 (灰 속에 넣어 구워 核은 없애고 酒에 담가 쪄 후 불에 쪄서 말린다.) 빈랑 (바르고 단정하게 생긴 것은 불기운이 닿지 않게 한다.) 옥두구 (쪄낸 다음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쪄서 말린다.) 대복피 (大豆汁과 술을 섞어 씻은 후 쪄개어 불에 쪄는다.) 지각 (밀겨서 볶은 후 씨방과 씨를 없앤다.) 조각 (껍질은 없애고 연유를 발라 黃色이 나도록 굵는다.) 행인 (밀겨서 볶아 껍질과 尖은 없앤다.) 정력 (종이위에 퍼서 살짝 볶는다.) 선령비 (羊의 기름에 섞어 기름이 다 할 때까지 볶는다.) 석곡 (뿌리는 없애고 쪄낸 다음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쪄서 말린다.) 녹용 (불에 쪄서 터럭을 제거하고 술에 하룻밤 담근 후 연유를 발라 慢火에 黃色이 나도록 굵는다.) 목은 마황 (뿌리와 마디는 없앤다.) 복령 (껍질은 없앤다.) 대황 (껍질은 없앤 후 굵거나 혹은 날것으로 쓴다.) 과루 (껍질은 제거하고 黃色이 나도록 볶는다.) 당귀 (破血에는 頭를 쓰고 取血止痛에는 尾를 쓴다.) 황련 (수염은 제거하고 쪄낸 다음 꿀에 섞어 慢火에 볶는다.) 용치 (곱게 갈아 水飛하여 벌에 말린다.) 용골 (혀로 훑아 혀에 붙는 것이 佳品이다. 술에 끓여 불에 쪄서 말려 쓴다.) 초롱담 (蘆를 없애고 쪄낸 다음 甘草물에 하룻밤 담근 후 벌에 말린다.) 복신 (껍질을 없애고 아울러 가운데에 나무를 싸고 있는 것도 없앤다.) 형삼릉 (불에 구워 익혀 쪄개어 부순다.) 전호, 시호, 진교, 고본, 길경, 자완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인삼 (蘆頭를 없애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嘔吐하게 한다.) 서각 (깎는다¹¹⁾.) 영양각 (깎는다.) 황기 (黑心을 없애고 쪄

11) 딱딱한 약재를 얇게 썰거나 鎚(鎚)로 갈아서 細末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6. p.93.

다음 꿀을 발라 약간 赤色이 나도록 굵는다.) 황금 (黑心을 없앤다.) 우슬 (蘆를 없앤다.) 종용, 토사자 (각각 술에 이를 밤을 담근 후 잘라서 벌에 말린다.) 패모 (心을 제거한다.) 산수유, 상백피, 지부자, 석엽, 야명사 (각각 약간 볶는다.) 우여량, 자오석 (각각 罌에 태워 온통 붉게 만들어 醃醃에 담그기를 일곱 번 하여 각각 곱게 가루내어 水飛한 후 사용한다.)

【原文】

論藥性有毒炮製者

附子(大熱大毒灰火中炮烈去皮臍剉焙乾) 天雄(大溫大毒) 川烏頭(大熱大毒 製俱同附子)

半夏(生寒熱溫¹²⁾ 小毒 湯洗七遍 生姜製 焙乾) 吳茱萸(熱小毒 湯浸七次 焙乾) 川椒(小熱小毒 去目 微炒汗出) 礪砂¹³⁾ (辛溫有毒用少許) 牛黃(平小毒 主小兒風熱)

其餘諸藥性 皆平溫微寒而無毒 不在製度之數也¹⁴⁾

【國譯】

藥性이 有毒한 藥物의 炮製를 논함

부자 (大熱하고 大毒하다. 罌에 구워 껍질과 臍지는 없애고 쪄낸 다음 불에 쪄서 말린다.) 천웅 (大溫하고 大毒하다.) 천오두 (大熱하고 大毒하다. 부자와 같은 方法으로 炮製한다.) 반하 (날것은 寒性이고, 익히면 溫性이다. 小毒하다. 湯하고 洗하는 것을 일곱 번하여 生姜으로 炮製하고 불에 쪄서 말린다.) 오수유 (熱性이고 小毒하다. 湯하고 浸하는 것을 일곱 번하여 불에 쪄서 말린다.) 천조 (小熱하고 小毒하다. 目を 제거한다. 살짝 볶으면 發汗시킨다.) 강사 (辛溫하고 毒이 있다. 소량을 쓰도록 한다.) 우황 (平性이고 小毒하다. 小兒風熱에 사용한다.)

그 나머지 모든 藥性은 모두 平溫微寒하고 毒이 없으니 炮製하는 方法을 수록하지 않는다.

이상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와 「論藥性有毒炮製者」의 藥材를 炮製하기 전에 가공하는 方法, 구체적으로 炮製하는 方法, 炮製에 사용하는 補料의 種類 등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2) 저본에는 熱溫으로 되어 있어 의미가 통하지 않는데, 『華陀遺書』와 『內照圖淺解』에 근거하여 '熱溫'으로 수정하였다.
13) 礪砂를 말함.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85.
14)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大韓. 自由出版社. 1995. p.77.

1. 가공법에 따른 分類

1) 藥材를 손질하는 방법

蘆頭를 제거하는 藥物 : 草龍膽, 前胡, 柴胡, 秦艽,
藥本, 桔梗, 紫苑, 人參, 牛膝

껍질을 제거하는 藥物 : 厚朴, 杜仲, 阜角, 杏仁,
茯苓, 大黃, 括蕒, 茯神

심지를 제거하는 藥物 : 遠志, 天門冬, 麥門冬, 黃耆,
黃芩, 貝母

터럭을 제거하는 藥物 : 骨碎補, 狗脊, 鹿茸

하얀 껍질을 제거하는 藥物 : 陳皮

잔뿌리를 제거하는 藥物 : 黃連

뿌리를 제거하는 藥物 : 石斛

뿌리와 마디를 제거하는 藥物 : 陳麻黃

붙어있는 살을 제거하는 藥物 : 鼈甲

씨를 제거하는 藥物 : 訶黎勒

씨망과 씨를 제거하는 藥物 : 枳殼

조개는 藥物 : 厚朴, 杜仲, 骨碎補, 狗脊, 肉苳蔻,
大腹皮, 石斛, 黃連, 草龍膽, 荊三棱
(이상 無毒藥物), 附子, 天雄, 川烏頭
(이상 有毒藥物)

얇게 썰거나 줄로 가는 藥物 : 犀角, 羚羊角

자르는 藥物 : 蒼朮, 從蓉, 兎絲子

잘게 부수는 藥物 : 蒼朮, 荊三棱

곱게 가루내는 藥物 : 石決明, 龍齒, 禹餘糧, 磁烏

껍질과 꼭지를 제거하는 藥物 : 附子, 天雄, 川烏頭
(이상 有毒藥物)

눈을 제거하는 藥物 : 川椒(이상 有毒藥物)

2) 藥材를 건조하는 방법

햇볕에 쬐어 말리는 藥物 : 陳皮, 蒼朮, 骨碎補,
天門冬, 麥門冬, 石斛, 龍齒, 草龍膽, 從蓉, 兎絲子

불에 쬐어 말리는 藥物 : 熟地黃, 厚朴, 訶黎勒,
肉苳蔻, 龍骨(이상 無毒藥物), 附子,
天雄, 川烏頭, 半夏, 吳茱萸(이상 有毒
藥物)

볶아서 말리는 藥物 : 杜仲, 狗脊

햇볕과 불에 쬐어 말리는 藥物 : 石斛

2. 炮製法에 따른 分類

1) 藥性味無毒

(1) 액체를 이용한 炮製法

술에 담구는 藥物 : 熟地黃, 狗脊, 訶黎勒, 肉苳蔻,
石斛, 鹿茸, 從蓉, 兎絲子

水飛¹⁵⁾하는 藥物 : 龍齒, 禹餘糧, 磁烏石

식초에 담구는 藥物 : 禹餘糧, 磁烏石, 鼈甲

물로 세척하는 藥物 : 熟地黃, 大腹皮

물에 끓이는 藥物 : 天門冬, 麥門冬

찌는 藥物 : 骨碎補, 訶黎勒

甘草물에 담구는 藥物 : 草龍膽

쌀뜨물에 담구는 藥物 : 蒼朮

生姜汁에 섞는 藥物 : 杜仲

大豆汁과 술에 함께 섞는 藥物 : 大腹皮

羊脂에 섞는 藥物 : 仙靈脾

끓는 물에 담구는 藥物 : 吳茱萸(이상 有毒藥物)

끓는 물에 세척하는 藥物 : 半夏(이상 有毒藥物)

生姜으로 法製하는 藥物 : 半夏(이상 有毒藥物)

(2) 불을 이용한 炮製法

볶는 藥物 : 杜仲, 狗脊, 葶藶, 仙靈脾, 括蕒, 黃連,
山茱萸, 桑白皮, 地膚子, 石鹽, 夜明砂
(이상 無毒藥物), 川椒(이상 有毒藥物)

굽는 藥物 : 甘草, 鼈甲, 阜角, 鹿茸, 黃耆

藥材를 써서 가열하는 藥物 : 訶黎勒, 大黃, 荊三棱

고열로 가열하는 藥物 : 禹餘糧, 磁烏石

밀기울과 함께 볶는 藥物 : 枳殼, 杏仁

통째로 굽는 藥物 : 乾姜(이상 無毒藥物), 附子,
天雄, 川烏頭(이상 有毒藥物)

불에 쬐는 藥物 : 大腹皮

3. 補料를 사용하는 藥物

술을 사용하는 藥物 : 熟地黃, 骨碎補, 狗脊, 訶黎勒,
肉苳蔻, 大腹皮, 石斛, 鹿茸,
龍骨, 從蓉, 兎絲子

15) 물에 녹지 않는 광물, 폐각류의 약물을 물에 넣고 반복하여
같이서 極細末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國韓醫科大學 共同教
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148.

초를 사용하는 藥物 : 鼈甲, 禹餘糧, 磁烏石
 生薑을 사용하는 藥物 : 厚朴, 杜仲(이상 無毒藥物),
 半夏(이상 有毒藥物)
 꿀을 사용하는 藥物 : 黃耆, 黃連
 연유를 사용하는 藥物 : 阜角, 鹿茸
 甘草물을 사용하는 藥物 : 草龍膽
 쌀뜨물을 사용하는 藥物 : 蒼朮
 羊脂를 사용하는 藥物 : 仙靈脾
 大豆汁을 사용하는 藥物 : 大腹皮
 밀기울을 사용하는 藥物 : 枳殼, 杏仁

4. 本草學書籍의 炮製法과 比較

1) 藥性味無毒

熟地黄		비고
『內照圖』	술에 담궈 찮고 불에 쪄어 말린다.	
『本草學』	<p>① 地黄汁으로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물에 가라앉는 地黄을 취하여 물에 반은 뜨고 반은 가라앉는 地黄(人黃)과 물위에 전부 뜨는 地黄(天黃)을 같이 찼어 汁液을 만들어 地黄에 拌하여 罈통에 넣고 충분히 찼서 꺼내 햇볕에 말린 다음 地黄汁 속에 하루저녁 담갔다 찼 후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하기를 아홉 번하여 제조한다.</p> <p>② 酒劑하는 방법으로는 地黄에 黃酒를 부어 축인 다음 罈통에 넣고 쉰 불에 48시간 정도 중탕으로 삶아, 술이 다 흡수되면 흑색의 윤이 나고 단맛이 난다. 이때 꺼내서 말리고 남은 약즙을 위에 뿌려 햇볕에 충분히 말린 다음 썰어서 다시 말린다. 이때 生地黃 100근당 黃酒 30근을 사용한다.</p> <p>③ 기타 酒, 砂仁, 陳皮 등을 輔料로 하여 蒸曬를 반복하고 内外가 黑色이며 질이 油潤하게 되면 햇볕에 말려서 제조한다¹⁶⁾.</p>	술을 이용하여 포제하는 것은 일치하나, 술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酒浸과 酒蒸으로 차이가 있음

1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p.635-636.

陳皮		비고
『內照圖』	하얀 껍질을 없애고, 벌에 말린다.	
『本草學』	많은 물을 뿌린 후 부드럽게 되면 切絲하거나 혹은 切片하여 曬乾하여 사용한다 ¹⁷⁾ .	손질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曬乾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일치함

蒼朮		비고
『內照圖』	잘라서 쌀뜨물에 하룻밤 담근 후 벌에 말린다.	
『本草學』	祛風發汗에는 生用하고, 燥濕健脾에는 炒用한다 ¹⁸⁾ .	米泔水浸과 生用 炒用의 차이

遠志		비고
『內照圖』	心은 없앤다.	
『本草學』	製遠志를 사용하면 安神, 祛痰의 효능이 높아지며, 독성이 줄어들고 성질이 緩和되므로 胃氣虛弱한 사람에 좋다 ¹⁹⁾ .	포제 방법이 다름

厚朴		비고
『內照圖』	粗皮는 없애고 쪼갠 다음 生薑製하여 불에 쪄어 말린다.	
『本草學』	인후 자극을 줄이고 寬中和胃의 효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薑汁製(厚朴 100kg 生薑 20kg)하여 사용한다 ²⁰⁾ .	모두 生薑을 이용

乾薑		비고
『內照圖』	구워서 쪼갠다.	
『本草學』	水浸 3~6 시간 후에 꺼내서 切片한 후 曬乾한다. 炮薑은 生薑을 용기안에 넣고 武火로 빨리 炒하여 外皮가 炒黃色이 되고 內部가 黃色이 되면 물을 분무하여 꺼내어 曬乾한다 ²¹⁾ .	모두 炮하여 사용

1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93

1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35.

1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36.

20)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37.

2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80.

甘草		비고
『內照圖』	黃色이 나도록 굵거나 혹은 生用한다.	모두 生用하거나 炙하여 사용
『本草學』	淸熱을 목적으로 할 때 生用하며, 溫中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蜜炙用(甘草 500g당 煉蜜125g)한다 ²²⁾ .	

杜仲		비고
『內照圖』	粗皮는 없애고 쪼개어 生姜汁에 섞어 볶아 말린다.	손질하는 방법과 볶아 건조하는 炮製法은 일치하나, 사용하는 보료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切絲한 다음 소금물을 가하여 고루 섞어 충분히 스며들게 한 다음 中火로 초록색이 될 때까지 볶아서 絲가 쉽게 끊어질 때 꺼내 건조하여 사용한다. 이 때 杜仲 100Kg당 食鹽 2Kg을 넣어 소금물을 만든다. 이 외에 蜜炙杜仲을 만들어 응용하기도 하는데 杜仲의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꿀을 섞어 가열해서 쓴다 ²³⁾ .	

骨碎補		비고
『內照圖』	터럭은 없애고 쪼개어 쓴다. 술에 섞어 찐 후에 하루 동안 별에 말린다.	蒸하는 방법과 같이만 보료로 술과 꿀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외용에는 生用(鮮品)하며 내복으로는 骨碎補를 蜜蒸하여 사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骨碎補 약제의 鱗片을 굵어 내고 지른 후 꿀을 섞어 스며들면 1일간 찐 후 별에 말린다. 鱗片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砂湯炒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냄비에 센 불로 모래를 가열하여 뜨거워지면 骨碎補를 넣고 계속 볶아 부풀고 노랗게 되면 내려서 체에 치고 모래와 鱗片을 제거하는 것이다 ²⁴⁾ .	

天門冬		비고
『內照圖』	湯에 담가 약간 적서 心은 뽑고 별에 말린다.	모두 心을 제거하고 曬乾하여 사용
『本草學』	洗淨한(혹은 溫水浸) 후에 心皮를 제거하고 절단하여 曬乾用하거나 酒蒸한다 ²⁵⁾	

麥門冬		비고
『內照圖』	위와 같다.	心을 제거하는 점은 같지만 生用하거나 朱砂拌 酒浸炒하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生用하나, 淸養肺胃陰에는 去心하고 朱砂拌(麥門冬 500g당 朱砂 9g)하며, 滋養補血의 목적으로는 酒浸後 炒하여 사용한다 ²⁶⁾ .	

狗脊		비고
『內照圖』	터럭은 없애고 쪼개어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볶아 말린다.	酒浸하거나 炒하는 방법은 같지만 附子 순서에 차이가 있음
『本草學』	一般的으로 炒狗脊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데, 냄비에 모래를 넣고 天泉히 볶아 모래가 튀면 狗脊을 넣고, 부풀어서 絨毛가 짙은 황색이 될 때까지 센 불로 볶은 후 꺼내서 모래를 제거하고 바람에 말려 絨毛를 털어 없앤다. 狗脊의 털을 대나무 갈 등으로 제거하고 물에 12시간 담근 후 시루에 찌서 하룻밤 동안 뚜껑을 덮었다가 뒤집어 찌고, 같이 황갈색이나 회갈색이 되면 불에서 내려 별에 말리고 절편으로 자른다. 또는 이렇게 가공된 狗脊을 酒浸一夜한다음 6시간 동안 찐 후 건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²⁷⁾ .	

鼈甲		비고
『內照圖』	속껍질을 발라내고 醋醃에 담근 후 慢火에 黃色이 나도록 반복하여 굵는다.	醋를 이용하여 굵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기본적으로 절단을 위하여 砂炒한다. 이후 滋陰潛陽을 목적으로 할 때는 生用하고, 軟堅散結을 목적으로 할 때는 醋炙黃(鼈甲 500g당 米醋 156.25g)한다 ²⁸⁾ .	

石決明		비고
『內照圖』	갈아 곱게 가루낸다.	生用하거나 煨用하는 경우를 언급함
『本草學』	破碎하여 生用하거나 煨用한다. 煨石決明은 한량한 성이 減少하여 收斂作用이 증가되어 平肝斂肝의 효능이 높아져 骨蒸癆熱, 青盲內障, 外傷出血에 응용된다 ²⁹⁾ .	

2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87.
23)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06.
2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15.
2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49.

2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48.
2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12.
2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65.
2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55.

訶黎勒		비고
『內照圖』	灰 속에 넣어 구워 核은 없애고 酒에 담가 전 후 불에 쪄어 말린다.	生用, 煨用, 炒用 하는 방법을 언급함
『本草學』	生用하면 久咳失音에 사용하고 熟用(煨, 炒)하면 止瀉에 사용한다 ³⁰⁾ .	
檳榔		비고
『內照圖』	바르고 단정하게 생긴 것은 불 기운이 닿지 않게 한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늦봄과 이른 가을에 익은 과실을 따서 물에 삶아 말린 후 果皮를 벗겨 種子를 꺼낸 뒤 말린다 ³¹⁾ .	
肉荳蔻		비고
『內照圖』	쪄낸 다음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쪄어 말린다.	酒浸 후 焙乾 하는 방법과 煨用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음
『本草學』	煨用하면 辛散의 성질이 줄어들고 固澀시키는 효능이 증강되므로 瀉痢不止를 治療하는데 煨用한다 ³²⁾ .	
大腹皮		비고
『內照圖』	大豆汁과 술을 섞어 씻은 후 쪄개어 불에 쪄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洗淨한 다음 切斷하여 건조하고 사용한다 ³³⁾ .	
枳殼		비고
『內照圖』	밀겨에 볶은 후 씨방과 씨를 없앤다.	麩炒 하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洗淨潤透시킨 다음 切片하고 건조한 후 瓢核을 키로 쳐서 제거하고 사용하거나 麩炒하여 사용한다 ³⁴⁾ .	

- 30)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74.
 3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24.
 3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76.
 33)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11.
 3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97.

阜角		비고
『內照圖』	겉질은 없애고 연유를 발라 黃色이 나도록 굽는다.	炙焦하는 방법과 礮碎하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破碎하여 사용한다 ³⁵⁾ .	
杏仁		비고
『內照圖』	밀겨에 볶아 겉질과尖은 없앤다.	去皮尖 하는 방법은 같지만 炒하거나 搗碎하여 사용하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皮尖을 제거하고 生用하거나, 搗碎하여 사용한다 ³⁶⁾ .	
葶藶		비고
『內照圖』	중이위에 퍼서 살짝 볶는다.	微炒하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生用하거나, 微炒하고 搗碎하여 사용한다 ³⁷⁾ .	
仙靈脾		비고
『內照圖』	羊의 기름에 섞어 기름이 다 할 때까지 볶는다.	羊脂에 볶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祛風濕에는 生用하고, 益腎補陽과 溫散寒邪에는 羊脂油를 가열하여 溶化하고 細切한 淫羊藿을 넣어 文火로 炒하여 外面이 고르게 광택이 날 때 꺼내어 건조하여 사용한다 ³⁸⁾ .	
石斛		비고
『內照圖』	뿌리는 없애고 쪄낸 다음 술에 하룻밤 담근 후 불에 쪄어 말린다.	酒浸하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건조하여 사용하거나, 12시간 정도 酒浸한 후 사용한다 ³⁹⁾ .	

- 3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94.
 3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16.
 3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23.
 3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03.
 3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52.

鹿茸		비고
『內照圖』	불에 쪄어 터럭은 제거하고 술에 하룻밤 담근 후 연유를 발라 慢火에 黃色이 나도록 굽는다.	터럭을 불에 그을려 없애고 酒浸 하는 방법이 일치함
『本草學』	사용할 때에는 털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유리칼로 털을 제거하거나 혹은 불에 그을려서 살짝 태운 후 검댕을 유리칼로 긁어낸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黃酒를 뽑아서 놓아두거나 술을 약간 부어 놓은 곳에 담구어 놓아둔다. 살짝 쪄 후 얇게 잘라 건조시킨다 ⁴⁰⁾ .	

陳麻黃		비고
『內照圖』	뿌리와 마디는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雜質을 제거하고 發汗에는 生用하고, 潤肺止咳에는 蜜炙用한다 ⁴¹⁾ .	

茯苓		비고
『內照圖』	껍질은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寧心安神에는 朱茯苓(茯苓 100kg에 朱砂 2kg)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⁴²⁾ .	

大黃		비고
『內照圖』	껍질은 없앤 후 굵거나 혹은 生用한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生大黃은 厚片 또는 小塊로 썰어 사용하고, 酒大黃은 生大黃에 黃酒를 고루 뿌려서 약한 불에다 볶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며, 熟大黃은 小塊로 절단한 生大黃에 黃酒를 고루 혼합하여 시루에 넣고 쪄서 건조한다. 大黃炭은 大黃片을 강한 불로 外表面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지면 꺼내 건조한다 ⁴³⁾ .	

括藹		비고
『內照圖』	껍질은 제거하고 黃色이 나도록 볶는다.	炒用 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生用하거나 炒用한다 ⁴⁴⁾ .	

當歸		비고
『內照圖』	破血에는 頭를 쓰고 取血止痛에는 尾를 쓴다.	炒用, 酒炙, 土炒, 炒炭, 薑製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함
『本草學』	炒用하면 補血, 調經, 潤腸通便하고, 酒炙하면 活血散瘀의 효능이 증강되어 散瘀經閉와 通經, 產後瘀滯腹痛, 打撲損傷 및 風濕痹痛을 治療하고, 土炒하면, 血虛로 인한 便澀을 治療하고, 炒炭하면 止血한다. 當歸를 酒炙하는 방법은 當歸片에 黃酒를 뿌리고 4시간 쪄 있다가 약간 불면 약한 불에 볶은 후 그늘에서 식힌다. 이때 當歸 100kg에 黃酒 10kg을 사용한다. 기타 痰病을 다스릴 때 當歸를 薑製하기도 하는데 當歸에 生薑汁을 침투시킨다. 또는 大黃과 함께 生薑汁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當歸를 酒洗할때는 當歸를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쓴다. 土炒할때는 籠土를 볶아 뜨거워지면 當歸를 넣고 약한 불로 深黃色이 될 때까지 볶은 후 식힌다. 當歸炭은 當歸片을 중간 불로 볶아 길이 焦黑色이 되면 꺼내어 식혀 사용한다 ⁴⁵⁾ .	

黃連		비고
『內照圖』	수염은 제거하고 쪄낸 다음 꿀에 섞어 慢火에 볶는다.	蜜拌炒하는 방법과 酒炒用 薑汁拌炒, 吳茱萸湯浸炒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음
『本草學』	清熱瀉火에는 生用하고, 上焦의 火를 清하려면 酒炒用하며, 嘔吐를 止하고자 하면 薑汁拌炒하며, 肝胃不和로 인한 嘔吐吞酸에 吳茱萸湯浸炒하여 사용한다 ⁴⁶⁾ .	

龍齒		비고
『內照圖』	굵게 갈아 水飛하여 別에 말린다.	
『本草學』	내용 없음	

40)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93.
4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155.
4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50.
43)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87.

4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02.
4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34.
4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22.

龍骨		비고
『內照圖』	粘舌한 것이 佳品이다. 술에 끓여 불에 쪄어 말려 쓴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煨用하면 收斂固澀 작용이 높아진다 ⁴⁷⁾ .	
草龍膽		비고
『內照圖』	蘆를 없애고 쪄낸다. 甘草물에 하룻밤 담근 후別に 말린다.	甘草水 浸하는 방법과 酒龍膽, 龍膽炭하는 방법이 다름
『本草學』	清熱燥濕에는 生用하고, 上焦火와 肝膽實火에는 酒龍膽을 사용하며, 清肝涼血에는 龍膽炭을 사용한다 ⁴⁸⁾ .	
茯神		비고
『內照圖』	껍질을 없애고 아울러 가운데에 나무를 싸고 있는 것도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寧心安神에는 朱茯神(茯苓 100kg에 朱砂 2kg)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⁴⁹⁾ . 白茯苓과 茯神의 경우 生用 또는 朱砂拌하여 사용한다.(白茯苓 혹은 茯神 500g당 朱砂 10g) ⁵⁰⁾	
荊三稜		비고
『內照圖』	불에 구워 익혀 쪄게어 부순다.	煨用하고 水浸하는 차이가 있음
『本草學』	물에 담가 수분을 충분히 潤透시켜 細切하고 曬乾하여 사용하거나 醋炒하여 사용한다 ⁵¹⁾ .	
前胡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潤透시킨 다음 切片하여 사용한다 ⁵²⁾ .	

柴胡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外感에는 生用하고, 內傷升氣에는 酒炒用하며, 陰虛人에게 사용할 때는 炒焦 또는 鱗血炒하여 사용한다 ⁵³⁾ .	
秦艸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切斷하여 사용한다 ⁵⁴⁾ .	
藁本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洗淨해서 潤透後에 切片하여 曬乾用한다 ⁵⁵⁾ .	
桔梗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切片하여 사용한다 ⁵⁶⁾ .	
紫苑		비고
『內照圖』	흙을 없애고 각각 蘆頭를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절단하여 生用하거나 蜜炙用한다. 炙用하면 潤肺시키는 효능이 증가된다 ⁵⁷⁾ .	
人參		비고
『內照圖』	頭를 없애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嘔吐하게 한다.	蘆頭를 없애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蘆頭를 제거하고 薄片으로 썰어서 사용한다 ⁵⁸⁾ .	

- 4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31.
 4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26.
 4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50.
 50)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6. p.650.
 5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60.
 5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99.

- 53)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189.
 5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11.
 5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168.
 5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00.
 5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18.
 5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77.

犀角		비고
『內照圖』	깎는다.	깎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鎊으로 磨하여 사용한다 ⁵⁹⁾ .	

羚羊角		비고
『內照圖』	깎는다.	깎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磨汁이나 鎊 또는 薄片으로 하여 『羚羊角鎊片』, 『羚羊角粉』으로 사용한다 ⁶⁰⁾ .	

黃耆		비고
『內照圖』	黑心を 없애고 조겐 다음 꿀을 발라 약간 赤色이 나오도록 굽는다.	蜜炙 사용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益衛固表에는 生用하고 補中益氣에는 蜜炙用(黃芪 500g당 煉蜜185g)한다 ⁶¹⁾ .	

黃芩		비고
『內照圖』	黑心を 없앤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切片하여 건조하여 사용한다. 淸熱瀉火에는 生用하고, 安胎에는 炒用하며, 上焦의 熱을 淸하는데에는 酒炒用하고, 止血에는 炒炭用한다 ⁶²⁾ .	

牛膝		비고
『內照圖』	蘆를 없앤다.	祛蘆頭하는 것은 같지만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洗淨한 다음 潤透되면 殘溜된 蘆頭를 제거하고 切斷하여 曬乾하여 사용하거나 酒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⁶³⁾ .	

5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32.
60)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43.
6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81.
62)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19.
63)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70.

從蓉		비고
『內照圖』	술에 이틀 밤을 담근 후 잘라서 별에 말린다.	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酒菴蓉으로 가공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肉菴蓉 조각을 黃酒와 섞어 용기에 넣어 4~8시간 밀폐시킨 후 중탕으로 24~32시간 가열해서 술이 없어질 때까지 찌고 햇볕에 말린다. 기타의 방법으로 淸酒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다음 잡질을 걷어내고 중심을 쪼개 흰막을 제거하고 다시 연유를 바르고 굽는다. 이때 재료의 용량은 肉菴蓉 100kg당 황주 30kg으로 한다 ⁶⁴⁾ .	

兔絲子		비고
『內照圖』	술에 이틀 밤을 담근 후 잘라서 별에 말린다.	酒浸하는 방법은 같은데 炒하거나 煮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음
『本草學』	洗淨하여 曬乾한 다음 사용하고, 煎劑에 넣을 때는 微炒(책에는 微炒)하여 研末하며, 丸劑에 넣을 때는 煮熟한 다음 搗爛하여 餅으로 만들어 曬乾하여 사용한다. 腎經에 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하여 鹽兔絲子로 만들기도 하는데 깨끗한 兔絲子를 소금물에 축인 다음 가마에서 약한 불로 볶아 황색이 되면 식힌다. 이때 兔絲子 100근에 소금 2.5근을 사용한다. 酒兔絲子餅은 깨끗한 兔絲子를 술에 넣고 물로 푼 삶아 물이 다 스며들면 黃酒와 밀가루를 넣고 반죽해서 떡을 만든 후 1cm로 썰어 별에 말려 만들고, 兔絲子酒浸은 兔絲子를 술에 하룻밤 담갔다가 햇볕에 말리며, 兔絲子醋浸은 兔絲子の 껍질을 벗기고 식초에 담갔다가 2일 후 문질러 黃精汁에 하룻밤 담그고 약한 불에서 말려 절구에서 쪼개 만든다 ⁶⁵⁾ .	

貝母		비고
『內照圖』	心を 제거한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川貝母-散劑로 만들어 사용한다 ⁶⁶⁾ . 浙貝母-切片하거나, 研末하여 사용한다 ⁶⁷⁾ .	

6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00.
6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p.621-622.

山茱萸		비고
『內照圖』	약간 볶는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酒蒸하면 補腎澀精의 작용이 증강되고, 生用하면 斂陰止汗의 작용이 우수하다 ⁶⁸⁾ .	
桑白皮		비고
『內照圖』	약간 볶는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生用하거나 蜜炙用한다 ⁶⁹⁾ .	
地膚子		비고
『內照圖』	약간 볶는다.	
『本草學』	내용 없음	
石鹽		비고
『內照圖』	약간 볶는다.	
『本草學』	내용 없음	
夜明砂		비고
『內照圖』	약간 볶는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焙乾하여 生用한다 ⁷⁰⁾ .	
禹餘糧		비고
『內照圖』	각각 쯤불에 태워 온통 불게 만들어 醃醋에 담그기를 일곱 번 하고 각각 곱게 가루내어 水飛한 후 사용한다.	醃 淬 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漚湯止瀉, 止帶에는 生用하고 收斂止血에는 醋淬한다 ⁷¹⁾ .	
礞烏石		비고
『內照圖』	각각 쯤불에 태워 온통 불게 만들어 醃醋에 담그기를 일곱 번 하고 각각 곱게 가루내어 水飛한 후 사용한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하여 土氣에 넣고 진흙으로 입구를 밀봉한 다음 爐에 넣어 불게 달군 후 꺼내어 냉각시킨 다음 극세말로 만들어 사용한다 ⁷²⁾ .	

66)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03.

67)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04.

68)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91.

6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22.

70)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6. p.379.

71)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681.

2) 藥性有毒

附子		비고
『內照圖』	大熱하고 大毒하다. 쯤불에 구워 껍질과 꼭지는 없애고 쪄낸 다음 불에 쪄어 말린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鹽附子를 清水에 담가 하루 2~3회 물을 갈아주되 소금기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 그 후 甘草 厚두와 물을 넣고 끓여서 질개하여 맛을 보면 혀를 자극하는 感覺이 없어야 한다. 이 때 甘草와 黑豆를 제거하고 薄片으로 썰어서 햇볕에 말린다. 鹽附子 100kg에 甘草 5kg, 黑豆 10kg의 비율로 한다 ⁷³⁾ .	
天雄		비고
『內照圖』	내용 없음	
『本草學』	내용 없음	
川烏頭		비고
『內照圖』	附子和 같은 방법으로 炮製한다. 쯤불에 구워 쪄고 皮臍는 없애고 쪄개어 불에 쪄어 말린다.	포제 방법이 다름
『本草學』	洗淨하여 曬乾하는데, 製烏頭는 冷水에 浸하되 하루에 2~3회 물을 갈아주고 맛을 보아 혀의 마비감이 적어지면 꺼낸 후 黑豆를 같은 량으로 하여 물을 붓고 烏頭內部의 白心이 없어질 때까지 삶아서 쪄개 햇볕에 건조시킨다 ⁷⁴⁾ .	
半夏		비고
『內照圖』	生用할 때는 寒性이고, 熟用할 때는 溫性이다. 小毒하다. 湯하고 洗하는 것을 일곱 번하여 生薑으로 炮製하고 불에 쪄어 말린다.	生薑을 사용 하는 경우는 같지만, 白礬, 甘草石灰水煎液 등을 이 용 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음
『本草學』	生半夏는 有毒하여 外用에 많이 응용하며 消腫散結의 효능이 있다. 生半夏를 내복하는 경우는 生薑을 만드시 같이 사용한다. 法半夏는 和胃燥濕하고, 薑汁抄한 半夏는 降逆止嘔에 편중되게 작용하며, 淸半夏는 燥濕化痰에 특징이 있다.	

72)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708.

73)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76.

74)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者.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78.

	<p>① 生半夏: 작은 부스러기는 체로 쳐서 가려낸다.</p> <p>② 法半夏: 半夏를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누어 냉수에 浸泡한다. 水浸日數는 산지와 품질, 기후에 따라서 조정하며 10일쯤 담가 흰 거품이 나오면 半夏50g에 白礬100g을 넣어 매일 물을 갈아주어 아린 맛이 안 날 정도가 되면 햇볕에 약간 말린다. 별도로 甘草石灰水煎液을 만들고 薑汁을 섞어 여기에 半夏를 넣어서 매일 휘저어 혼합하여 중심부의 白心이 없어지고 고루 스며들어 황색으로 되면 꺼내어 그늘에서 말린다. 半夏1000g당 白礬20g 甘草160g 石灰200g의 비율로 한다.</p> <p>③ 薑半夏: 정선된 半夏를 위의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白礬과 生薑片을 넣어 液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썰서 陰乾한다. 半夏1000g 生薑250g 白礬125g의 비율로 한다.</p> <p>④ 淸半夏: 정선된 半夏를 위의 방법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 白礬水를 넣어 썰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다⁷⁵⁾.</p>
--	--

吳茱萸		비고
『內照圖』	熱性이고 小毒하다. 湯하고 浸하는 것을 일곱 번하여 불에 쪄어 말린다.	湯浸후 焙乾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甘草煎湯에 湯液이 흡수될 때까지 浸泡한 후 微火로 焙乾한다 ⁷⁶⁾ .	

川椒		비고
『內照圖』	目を 제거한다. 살짝 볶으면 發汗시킨다.	炒하는 방법이 같음
『本草學』	果柄과 종자를 제거하고 용기 내에서 炒하여 油性을 제거하고 서늘한 곳에 방치한다 ⁷⁷⁾ .	

75)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88.
76)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83.
77)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384.

礪砂		비고
『內照圖』	내용 없음	
『本草學』	生用 혹은 製用한다. 제법은 礪砂를 碾碎해서 끓는 물에 용화하여 殘渣를 제거하고 磁盆속에 傾入한 후 米醋를 넣고 重湯하여 湯面の 白色浮霜을 수시로 건져서 백지 위에 놓고 건조시킨다.(礪砂 500g당 米醋 250g정도) ⁷⁸⁾	
牛黃		비고
『內照圖』	내용 없음	
『本草學』	研末하여 極細末로 만들어 사용한다 ⁷⁹⁾ .	

Ⅲ. 考察 및 結論

『內照圖』卷下「明藏府應五藏藥名」에는 五藏 병증을 치료하는 藥材를 心風服疎冷藥, 心氣服疎熱藥, 心熱宜服君冷藥, 心冷宜服使疎藥, 心虛宜服君藥, 肝風宜服臣藥, 肝氣宜服使藥, 肝熱宜服冷藥, 肝冷宜服熱藥, 肝虛宜服溫補藥, 肺風宜服疎冷藥, 肺氣服疎藥, 肺熱宜服疎藥, 肺冷宜服平藥, 肺虛宜服溫冷藥, 脾風宜服疎藥, 脾氣服使藥, 脾熱宜服疎冷藥, 脾冷宜服疎熱藥, 脾虛宜服溫補藥, 腎風宜服熱藥, 腎氣宜服鹹熱藥, 腎熱宜服疎冷藥, 腎冷宜服毒熱藥, 腎虛宜服熱補藥 등 2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126종의 藥材를 수록해 놓고 있는데 80), 이는 五藏 각각에 대하여 風氣熱冷虛로 병증을 구분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治療藥材를 疎藥, 熱藥, 冷藥, 君臣佐使, 平, 補 등의 효능에 따라 分類한 것이다. 그 다음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에 58종 藥物과 「論藥性有毒炮製者」에 8종 藥材를 수록하고 炮製法을 설명하였다⁸¹⁾.

78)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6. p.858.
79)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253.
80)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대만. 自由出版社. 1995. pp.61-74.
81)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玄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대만. 自由出版社. 1995. pp.75-77.

『明藏府應五藏藥名』중 126종 藥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와 「論藥性有毒炮製者」에 언급된 藥材는 皂角, 半夏가 있었으며, 「論藥性味無毒合炮炙製度」의 檳榔, 當歸, 龍骨 3종과 「論藥性有毒炮製者」의 礪砂, 牛黃은 性味나 主治證만 언급하였고 炮製法은 언급하지 않았다.

『內照圖』의 有毒無毒 區分에 대한 내용을 『本草綱目』, 『本草學』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無毒藥材 가운데 皂角⁸²⁾, 杏仁⁸³⁾은 『內照圖』와 다르게 『本草綱目』과 『本草學』 모두 小毒하다고 하였으며, 桔梗은 『本草綱目』⁸⁴⁾에서는 小毒하다고 하였으나 『本草學』⁸⁵⁾에서는 『內照圖』와 같이 無毒하다고 하였다. 또한 磁烏石은 이와 반대로 『本草綱目』⁸⁶⁾에서는 『內照圖』와 같이 無毒하다고 하였는데 『本草學』⁸⁷⁾에서는 有毒하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藥材들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有毒藥材에 대해서는 附子, 川烏頭, 半夏, 吳茱萸, 川椒, 礪砂, 牛黃 등에 대하여 藥物毒性의 大小에 대한 표현의 차이만 있었을 뿐 毒性有無에 대해서는 『內照圖』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藥材를 가공하는 方法을 살펴보면 炮製하기 전에 미리 손질하는 方法과 건조하는 方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손질하는 方法으로는 去蘆, 去心, 去白, 去皮, 去鬚, 去毛, 去根, 去根節, 去裙, 去核, 去穢, 去皮臍, 去目, 研細, 切, 剉, 碎, 鎊 等の 方法이 있었고, 건조하는 方法으로는 焙乾, 晒乾, 炒乾, 燉焙乾 等の 方法이 있었다.

炮製法에 대해 살펴보면, 액체를 이용하는 方法과

불을 이용하는 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를 이용한 炮製法으로는 浸, 洗, 水飛過, 蒸, 生姜汁拌, 大豆汁與酒相和 等の 方法이 있었으며, 불을 이용한 炮製法으로는 炒, 燒, 煨, 炙, 炮, 焙 等の 方法이 있었다. 별도로 甘草, 大黃, 半夏의 경우는 炮製法 외에도 生用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炮製에 사용된 補料를 살펴보면, 甘草水, 米泔, 大豆汁, 酒, 醋, 蜜, 酥, 生姜, 羊脂, 麩 등이 있었다.

현대 本草學書籍에 수록된 藥材를 가공하는 方法이나 炮製法과 비교해 보았더니 『內照圖』에서 언급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內照圖』가 5~6세기에 지어졌기도 하고 분초학을 전문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서적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 本草學書籍의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內照圖』에는 天雄, 礪砂, 牛黃의 炮製方法에 대한 설명이 없고, 『本草學』에는 龍齒, 地膚子, 石鹽, 天雄의 炮製方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IV. 參考文獻

1. 蕭天石 主編. 道藏精華 第十四集之二 華陀女門內照圖 養生導引法 合刊. 大만. 自由出版社. 1995. p.77. pp.61-74, 75-77.
2. 彭靜山 編. 華佗先生內照圖淺解.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5. pp.61-68.
3. 高文鋒 主編. 華佗遺書. 北京. 華夏出版社. 1995. pp.214-217.
4.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5.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53, 254, 285, 310, 311, 327, 734, 859, 864.
6. 雷敷 撰, 王興法 輯校. 雷公炮灸論.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
7.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43.
8. 朱建平 외 2인 主編. 中藥名考證與規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 82)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859.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494.
- 83)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734.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15.
- 84)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311.
- 85)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500.
- 86) 李時珍 著, 陳貴廷 等 點校. 本草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54.
- 87) 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708.

9. 馬繼興 著, 萬芳 編集. 馬繼興醫學文集. 中醫古籍出版. 北京. 2009. p.74. pp.74-77.
10. 全國韓醫科大學 共同教材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5. p.154, 168, 189, 219, 222, 226, 252, 287, 311, 335, 337, 350, 376, 378, 380, 383, 384, 393, 397, 411, 424, 460, 470, 488, 494, 499, 500, 502, 503, 504, 515, 516, 518, 522, 523, 531, 536, 543, 555, 577, 581, 587, 593, 603, 606, 612, 615, 634, 648, 649, 652, 665, 674, 676, 681, 691, 708. pp.365-366, 621-622, 635-636.
11. 辛民教 編著. 臨床本草學. 서울. 영림사. 2006. p.93, 313, 379, 650. 858. pp.683-684.
12. 한봉재 외 7인. 『華陀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 편제.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3(4). 2006.
13. 한봉재. 『華陀玄門內照圖』의 形成과 臟腑 理論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